

청년들의 농촌 자립 프로젝트

오도* /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 생태농업과 전공부 교수

연구 필요성

최근 농촌 지역으로 이주했거나, 이주를 희망하는 청년이 늘고 있다. 2013년 이후 전반적으로 귀농·귀촌자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¹⁾, 30대 이하와 40~50대에서 그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30대 이하 청년의 귀농 성향을 살펴볼 때 단순하고 고요한 삶에 대한 갈



[그림 1] 귀농·귀촌을 생각하는 이유

자료: 삼선복지재단(2015)

* 오도: 깊이 있는 인생관과 실제 능력에서 균형 잡힌 인격을 양성하고자 하는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의 생태농업과 전공부 교수로 농사와 원예를 가르친다.

1) 귀농·귀촌 인구수: 2013년 422,770명 -> 2015년 486,638명 -> 2017년 516,817명(통계청)

망과 내면의 풍성함 등 ‘탈근대적 가치’에 기반한 귀농·귀촌이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세상이 어지럽기 때문이기도 하나 산업 사회가 만든 소비적 삶, 생태계 파괴에 대한 문제의식 속에서 농(農)적 가치, 공동체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삶을 스스로 만들고 싶다는 소망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나와 너의 관계를 소중히 하고,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과 따뜻함을 느끼고 싶은 청년이 하나둘 농촌에서의 삶을 지향하며 방향 전환을 하거나 귀농·귀촌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소득을 위한 단작 생산으로 망가지는 땅, 이상 기후로 평형이 깨지는 농촌 생태계, 자본과 기반이 없는 청년에게 높은 농촌 진입장벽 등 지금 농촌 현실은 청년 스스로 감당하기에는 주거, 생활비, 자본금, 지역 주민과의 관계 맺기 등에서 현실적 제약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단위: 만 원)



[그림 2] 20~30대 귀농자의 실제 준비 자금

자료: 삼선복지재단(2015)

그렇다고 이런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전문가나 기성세대에게 마냥 내맡길 수도 없다. 스스로 절박한 농촌 현실에 맞서 ‘자립’의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것이야말로 어느 때보다 절실한 과제가 아닐까 한다. 이러한 필요를 바탕으로 본 연구를 통해 청년이 농촌에서 자립하



[그림 3] 지역 정착의 장애요인 자료: 삼선복지재단(2015)

며 살 수 있다는 것을 검증하기를 기대한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의 성과가 앞으로 새로운 귀농·귀촌을 꿈꾸는 청년에게 길잡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연구 방법

풀무원농업고등기술학교 생태농업과(이하 전공부) 2년 과정을 마친 청년 5명과 다른 지역에서 흥동으로 귀농하여 실질적 기반이 없는 청년 1명 등 총 6명이 함께 농장을 만들어 유기농산물을 생산하고 가공, 유통하여 1년간 자립이 가능한지 파악하고자 했다.

농장을 만든 이유는 첫째, 농촌에 거주하며 가장 기본인 먹거리를 직접 농사지어서 마련 하자는 취지였으며, 농사를 짓지 않으면 도시 대비 소득이 적은 농촌에서 생활비를 감당하 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둘째, 농촌에서 소농으로 어느 정도의 자립이 가능한지 청년 스스로 가늠하기 위함이다. 청년들이 만들고자 하는 농장은 늘, 누구나 함께 하고 싶 은 아름다운 농장,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농장이다.

연구 내용

1. 청년들의 농촌 자립 프로젝트

연구 필요성에서 서술한 내용은 흥동의 작은 마을대학인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에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2001년 개교 즈음 40~50대의 귀농 희망자 중심이던 학생 연령대가 2010년 이후에는 20대 중심에 한두 명의 30~40대가 섞이는 경향으로 바뀌었다. 20대 학생은 대안학교를 졸업하거나 도시에서 대학 졸업 혹은 중퇴, 1~3년 정도의 직장생활 경험자가 대부분이고, 입학 동기는 각기 다르지만 추구하는 삶이 지금까지의 경쟁이 아닌 스스로가 행복한 삶을 농촌에서 찾고 싶다는 공통점을 지녔다.

그러나 정착을 결심해도 여러 가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난관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첫째가 ‘집’이다. 빈집이든 임대할 수 있는 집이든 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흥동에 살고자 생각하면 적어도 1년 정도는 기다려야 한다. 물론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귀농의 집이 있지만 흥동으로 귀농하려는 사람이 많다 보니 기회를 얻기가 어렵고, 살 수 있는 기간은 길어야 1년이기에 그 기간 내에 살 집을 또 구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다음으로 ‘생활비 마련’이다. 농촌은 생활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들 것 같지만 농사를 짓지 않는다면 도시에서와 마찬가지로 먹는 것부터 돈이 들어가고, 고정비도 무시할 수 없다. 다만 도시보다 돈을 적게 쓰는 환경이고, 돈을 벌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절약하는 것이 습관이 될 뿐이다. 농촌에 진입한 첫해에는 국가에서 하는 청년 지원 사업을 통해 농사를 배우면서 생활비 보조를 받을 수 있거나, 마을 단체에서 일하면서 생활비 일부를 벌 수도 있고, 자급할 농사도 주위의 도움으로 큰 걱정은 덜 수 있었다. 그렇지만 이후의 경제적 기반에 대한 방향 설정은 각자의 몫인데, 1994년 이후 농가농업소득이 1,000만 원대로 정체상태인 현실에서 답을 찾기가 쉽지 않다.

셋째 ‘마을 공동체와 관계 맺기’이다. 전공부를 졸업한 선배들이 이미 마을에 살고 있어 비빌 언덕이 있지만, 실제 마을에 마음을 나눌 또래가 거의 없어서 외로움을 느낄 수 있고, 스스로 대처해야 할 일도 많이 있다. 그리고 마을 공동체의 삶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도시적이고 현대적인 개인 생활 방식과 사고방식이 자신도 모르게 불쑥 나오거나, 어느 정도의 거리를 원하는 마음 또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청년도 안다. 이렇게 마을 공동체와 관계

를 맺어 가야하는 부담감이 존재한다.

2016년 말, 흥동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하여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풀무학교 전공부 졸업예정자와 귀농예정자가 모여 논의했다. 이들은 세 가지 난관 중 ‘집’과 ‘생활비’는 전공부 선생님과 마을 주민들의 도움으로 1년간 해결된 상태였다. 그 때문에 가장 먼저 논의된 주제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였다. 상업농이 아닌 소농으로 자급하며, 적은 소득이라도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살기 위한 일과 활동을 하고 싶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다. 이를 위해 누군가가 마련해준 것이 아닌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해 보자는 데 동의하였다. 500평²⁾의 밭을 임대해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및 판매 전 과정을 경험하면서 얻은 이익을 산출하기로 하였다.



[그림 4] 청년 자립 프로젝트팀

가. 농장 만들기

1) 어떤 농장을 만들 것인가?

함께 구상한 농장은 기계적 에너지와 퇴비를 적게 사용하고, 땅을 경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녹비작물을 심어 활용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이를 위해 밭은 최초 전체 경운만 하였

2) 우리나라 농기당 평균 재배면적은 약 4,500평, 밭작물을 재배하는 소농은 2,000평 정도이다.

다. 긴 두둑(1m×10m)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모양의 두둑을 직접 삽으로 만들며, 효율적인 두둑의 모양과 길이에 대해서도 학습하였다.

밭 일부는 텃밭 정원의 형태로 만들어 여러 꽃과 작물, 허브가 어우러지게 하여 노동과 휴식이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렇게 밭을 만들어 어린이집 텃밭 교육장의 일부로도 활용했다. 작물은 홍성 씨앗도서관과 협력하여 대부분 토종 씨앗으로 재배하고 가을에 채종한 씨앗을 나누었다.

기계적 에너지를 대체하고자 마을 환경단체와 적정기술팀의 협조를 얻어 빗물저장소도 만들었다. 그 이후 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여 건물에 빗물받이와 빗물저장소를 설치하여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 방법은 건물 인근에 있는 밭이라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지하수에 의존하는 방식을 보완하고 건물과의 거리가 더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비닐하우스 지붕을 이용하는 방식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림 5] 트랙터 경운



[그림 6] 밭만들기



[그림 7] 농자재 제작



[그림 8] 완성한 상자들



[그림 9] 5월의 밭



[그림 10] 8월의 밭



[그림 11] 빗물 저장소 학습 및 설치



2)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농사가 시작되는 3월부터 주 2회 정도 밭 만들기를 하고, 4월말부터는 주 1회 작물 심기와 관리를 시작하였다. 가공은 전공부에서 배운 현미김치와 잼, 효소류가 전부였기에 숙련도를 높이는 한편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가공에 대해 알아보고 공유하였다. 그리고 500평 밭 임대료와 기본 농자재, 가공 도구를 구입하여 가공을 확대하기로 했다.

6월부터 농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개인 사정이나 마을에서 함께 일하는 일(법씨 파종, 모내기, 논둑 정리, 가을걷이 등)이 많아져 일지를 쓰고 그날 한 일을 공유했다. 그리고 소득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결산하기로 하였다.

나. 생산과 가공

1) 무엇을 농사지을 것인가?

농산물 품목을 결정하기 전, 누구에게 판매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했다. 다행히 농산물이 나오는 시점부터 전공부 식당과 인근에 있는 반찬가게에 납품할 수 있어 농사지을 작목을 이 두 곳에 맞춤했다. 전공부 식당에는 전공부에서 자급하는 농산물을 제외한 대파, 열무, 얼갈이 배추김치, 봄무, 시금치, 아욱, 근대, 가지 등으로 7~8월을 제외하고 1주일에 한 번 정도 납품할 수 있었다. 반찬가게에는 전공부와 같은 농산물에 오이와 호박, 쌈채, 노각, 풋고추 등을 추가하였고, 다양한 식재료가 필요한 곳인 만큼 봄에는 뽕나무 잎, 오가피 잎, 냉이 등을 채취하여 한 달에 한 번 납품하였다. 발작물처럼 한곳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을 곳곳에 자연발생적으로 분포하고 있어 채취가 쉽지 않고,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맛은 재배한 것보다 훨씬 좋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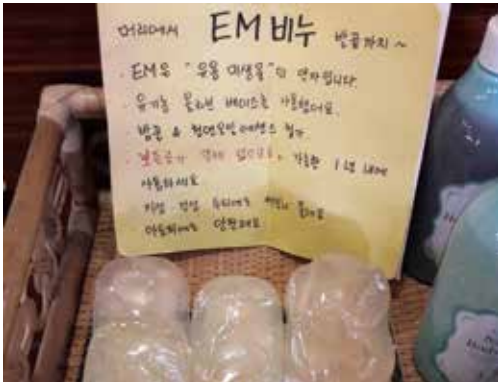
2) 어떻게 가공할 것인가

전공부에서 배운 가공은 현미김치, 효소류가 전부였기 때문에 홍성군농업기술센터에서 장아찌 교육을 받기도 하고, 프로젝트에 관심 있는 분들의 도움으로 강정과 비누 만드는 방법을 배웠다. 인터넷 레시피를 바탕으로 딸기잼, 토마토피레, 케첩, 토마토 잼 등을 만들었고 결명자차, 보리차, 효소 등도 집에서 가공을 연습하고 주변 평가를 통해 판매 가능한지 가늠하였다.

다. 유통 및 판매

1) 마을 내 유통

홍동 마을에서는 갯골생협과 홍성유기농영농조합, 홍동로컬푸드를 통해서 농산물과 가공품을 판매할 수 있다. 세 곳 모두 회원으로 가입을 한 후 판매가 가능하다. 홍성유기농영



[그림 12] 납품한 가공품(갯골생협)



[그림 13] 갯골생협(조합원 가공품 코너)

농조합과 흥동로컬푸드는 농업 관련 인증을 받아야 판매할 수 있고, 갯골생협은 인증이 없어도 되지만 물품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된다. 따라서 갯골생협에서만 판매 가능했고, 나머지 두 곳은 인증을 취득한 후 판매할 계획이다.

갯골생협에서 판매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조합원의 농산물 및 가공품과 안전하다고 평가받은 공산품이다. 구성은 제빵·제과류, 쌀과 잡곡, 반찬류, 잼류, 장류, 기름류, 효소류, 마른 나물류, 비누, 꽃차 등과 과일이고, 조합원이 생협에 내는 물건은 집에서 만드는 것이 대부분이라서 소량 생산이 주를 이룬다. 갯골생협을 이용하는 주 고객은 마을 주민인데 기본적으로 작은 텃밭을 경작하기에 1차 농산물은 과일 외에는 많이 이용하지 않는다. 견학 고객도 농산물보다 금방 먹을 수 있는 빵과 과자류, 보관이 쉬운 가

공품과 공산품을 주로 이용한다.

2016년말 모임을 시작하면서부터 갯골생협에 비누, 현미 강정, 현미 김치 등을 판매했고 점차 수세미 효소, 보리차, 토마토피레, 말린 가지, 들깨가루 등 품목을 늘려갔으며, 농장에서 재배한 재팔을 제빵재료로 판매하기도 하였다. 이곳에서는 제빵 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재팔 이외의 1차 농산물 판매는 어려웠다. 따라서 1차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했다.

2) 새로운 판매처 찾기

가) 전공부 식당, 반찬가게, 모종장

갯골생협 이외의 판로처에 대한 고민은 프로젝트 시작할 때부터 계속 되어왔다. ‘시장에서 직접 농산물을 팔아보자’, ‘꾸러미를 해보자’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농산물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고, 꾸러미를 해도 당장 보낼 수 있는 곳은 도시의 가족뿐이었다. 그리고 꾸러미를 할 경우에는 홍보, 구성품 구상, 회원 관리 등이 필요한데, 당장은 실행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다수 의견이었다.

전공부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전공부 식당에 사용할 수 있는 식재료를 농사지어서 납품하게 되었다. 필요한 농산물과 그 품질에 대한 평가는 식당 선생님이 도와주기로 했다. 이런 도움은 ‘농사를 열심히 지어야겠다’는 학생 때와는 다른 책임감과 원동력이 되었다. 이와 함께 인근의 반찬가게도 소개받았다. 반찬 가게는 식당보다 다양한 재료와 물량이 필요한 곳이기기는 하지만, 우선은 납품할 수 있는 것을 기본 4kg 단위로 받아주기로 했다. 이곳 역시 농산물에 대한 평가를 냉정하게 해주었다. 이렇게 판매처가 일찍 정해졌기 때문에 농사계획 짜기는 쉬워졌다.

그리고 흥동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봄마다 모종장터가 열리는데, 양배추, 콜라비, 가지, 쌈채 등의 모종을 판매하여 소득을 내었다. 장터 이외에도 모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연계 판매할 기회가 있어서 처음에 예상한 것보다 이익이 많이 났다. 이 모종장을 위해서 2월 말부터 파종을 시작하였고, 가온하우스는 전공부 모종하우스를 학생들과 함께 사용하였다.

자가소비든 판매 목적이든 이른 봄 모종을 키우는 데에는 비용이 많이 든다. 가온하우스 외에도 씨앗 값, 상토, 포트, 전열 자재 등의 부자재 비용도 만만치 않다. 그렇다고 해서 모종을 모두 사서 쓰면 당장은 시설비만큼 비용이 들지 않아 저렴하게 느끼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비용이 들더라도 기반시설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14] 모종장에 나갈 모종

나) 토종씨앗 요리팀

홍동은 다른 지역과 달리 다양한 단체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홍성 씨앗도서관이다. 씨앗도서관은 홍동 마을에서 재배하는 토종 씨앗을 수집하고 증식하여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대여한다. 2017년 4월 갯골생협, 씨앗도서관, 청년자립프로젝트팀이 함께 모여 ‘토종씨앗 요리팀’을 만들었다. 청년자립프로젝트팀은 할머니들이 맛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재팔을 증식하고, 갯골생협이 그것으로 빵을 만들어 판매하며, 씨앗도서관에서 할머니들의 씨앗이야기를 수집 및 정리하여 마을 사람들과 나누는 또 하나의 프로젝트이다. 할머니들이 생산한 재팔을 생협이 좋은 가격에 수매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는 계획도 세웠다.

이 제안은 다른 단체와 같이 일을 해보는 것에도 의미가 있지만, 농촌에서 종자를 지키는 것이 앞으로 우리의 몫이라는 사명감 측면에도 의미 있는 일이라 판단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앙버터³³⁾’다. 처음에는 버터의 느끼한 맛이 강한 듯했지만, 지금은 팔고물과 버터의 황금비율을 찾아내어 생협에서 잘 팔리는 제품이 되었다. 그러나 재료인 버터 가격이 비

싸고 잘 녹기 때문에 소량생산과 계절 판매로 한정했다. 홍성 씨앗도서관, 갯골생협, 청년 자립팀, 이 세 팀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였기에 얻어진 결과로 서로에게 좋은 경험이 되었다.



[그림 15] 인기리에 판매된 '양버터'

다) 소농 중심의 한살림 꾸러미

2017년 5월 초순, 충남 한살림에서 소농을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소농 중심의 한살림 꾸러미'를 조직하고자 농가를 모집했다. 참여조건은 소농이어야 하고, 한살림 정신과 그 운동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되었다.

꾸러미에 대한 생각은 모두가 있었지만 처음이었고, 모든 것을 해내야 한다는 부담감에 프로젝트 초반에는 엄두도 못 냈다. 하지만 이번 기회는 꾸러미에 대한 공부와 좋은 경험이 될 듯하여 참가하게 되었다. 첫 모임에는 많은 이들이 관심을 보였지만 의견을 취합하기가 쉽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우리 팀을 포함한 초보농부 4팀이 함께 하였다.

이 꾸러미는 생태순환과 지역순환을 추구하며, 화학 연료와 비닐 사용 최소화, 유기농인 증에 준하는 농자재 사용, 자가 채종한 씨앗을 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시작하였다. 우리 뜻과 맞는 회원을 모집하여, 꾸러미 발송은 10월 둘째 주부터 시작되었다. 그에 앞서

3) 팥앙금과 버터의 합성어로, 두 재료를 넣어 만든 빵을 일컫는다.

홍동 장터에 나가 꾸러미를 홍보하고 된장, 효소 등의 가공품과 고구마 순, 깻잎 등의 농산물을 팔았다. 겨울에는 준비할 수 있는 물품 수가 적어서 12월부터 꾸러미 방학에 들어갔다. 그리고 2018년 봄부터 꾸러미 회원과 함께할 수 있는 농사 체험 프로그램과 좋은 먹거리 레시피를 만들어 홍보하고 있다.



[그림 16] 첫 번째 꾸러미박스과 장터참여



[그림 17] 도농 캠프 참여와 마을 대청소

라) 기타

이 밖에도 마을 법씨 파종과 모내기, 홍동마을 꽃길 사업, 어린이집 텃밭교육장 만들기, 도시청년 농업·농촌캠프 등에도 참여하여 마을 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 그리고 마을 구

성원과의 유대관계를 맺어 갔다.

2. 생활비 마련

1) 마을 청년 지원 사업 - 멘토·멘티 사업

마을 청년 지원 사업은 귀농한 청년이 한 농가에서 1년 동안 농사와 관련된 일을 배우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은 매달 80만 원, 농가는 매달 40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5개월 동안 지급된다. 농사 이외에도 마을에서 함께 일하거나, 일하기 힘든 어르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관계를 맺고 정착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다만 농사가 바빠지는 시기에는 일이 많아져 프로젝트에 시간을 내는 것이 쉽지 않았다.

2) 마을 활력소 청년 인턴 사업

홍동 마을은 타 지역에서 오는 청년을 위한 인턴 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1년 단위 사업으로 한 달에 10일 이상, 총 50시간을 일하면 매달 사업비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주 업무는 마을 활력소로 인력을 신청하는 마을 단체에 가서 일하거나, 공부방 도우미, 마을 꽃길 사업, 마실 통신 배달, 도농 청년 캠프 진행 등 마을에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이다. 2017년에는 이 사업으로 4명의 청년이 생활비를 보조받았고, 이 중 프로젝트에 참여한 청년 한 명도 도움을 받았다.

이 사업을 통해서 홍동 마을의 여러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농사가 아닌 다른 일을 체험하면서 진로도 모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그러나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실제로 청년이 일을 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은 6~7개월 정도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다른 일을 통해서 생활비를 충당해야 했다.

3) 마을 단체 간사

마을 단체 중에는 정기적인 행사 진행, 소식지 발행과 회원 관리 등을 위해 간사를 필요

로 하는 곳이 있다. 급여는 일하는 정도에 따라서 다양하지만, 대부분의 마을 단체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기 때문에 넉넉하지 않다.

마을 단체 간사로 일하는 것은 단체의 성격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정착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기도 하고, 농사와 겸업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장점이 있다.

4) 기타 - 아르바이트

이 밖에도 농사 아르바이트(토마토 모종심기, 양파 수확, 논둑 풀 깎기, 벼 이앙작업 등)와 일손이 필요한 단체에 단기 아르바이트로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

3. 공생공락

프로젝트팀은 일과 별도로 한 달에 1번 만나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처음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소득 모델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촌에 직접 살면서 드는 느낌과 생각을 공유하자는 의견으로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일의 연장선상이 되는 듯하여 부담스럽기도 하였지만, 차츰 자신의 이야기, 서로에 대한 솔직한 마음, 마을 소식,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연애 이야기, 앞으로의 농사 전망 등 특별한 주제 없이 자유롭게 여러 이야



[그림 18] 공생공락 모임

기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

다양한 주제들이 오고 갔지만, 가장 많이 나누었던 이야기는 역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였다. 지금 혼자서는 그럭저럭 살고 있지만 결혼 자금 마련과 배우자의 농촌 선택 가능성, 아이 교육, 안정적인 경제생활 등에 대한 고민이 ‘잘 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과 ‘잘 될까?’라는 두려움을 함께 토로했다. 각자가 바라보는 ‘지금의 농촌에서 내 비전 찾기’의 시발점이라 판단된다.

농촌을 선택한 것은 도시생활의 답답함과 경쟁에 내몰리는 사회에 대한 염증, 각자의 사정, 농촌과 농사에 대한 동경 등에서 시작되었지만, 살면서 겪어내야 하는 이런 고민들에 대한 답을 농촌 안에서 찾기는 쉽지 않았다. 도시보다 풍족한 것도 있지만 부족한 것도 많고, 각자의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만의 방식을 찾는 것이 중요했다. 완벽한 답을 찾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함께 고민하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다.

다음으로 많이 한 이야기는 일에 매몰되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방법이었다. 최근 농촌을 선택하는 청년의 가장 큰 이슈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자유를 선택하는 만큼 경제적인 안정을 포기해야 하거나, 주위의 시선에서 벗어나야만 가능하다. 자유롭게 사는 것은 혼자서든, 여럿이든 고유의 영역이다. 그리고 자유로운 만큼 포기되는 것과 책임져야 하는 것 역시 고유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삶의 방식에 대한 존중과 지지를 진정성 있게 하고, 삶의 태도에서도 나타내야 한다. 이런 개인의 삶이 마을 공동체 안에서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어르신들의 투박한 관심의 언어를 알아듣고,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활동의 조화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많이 느꼈다.

농사가 바빠지는 철에는 모두 모이기가 쉽지 않았지만, 만날 수 있는 누군가가 옆에 있다는 것은 서로에게 큰 버팀목이 되었다. 또한 가끔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셨던 전공부 선배, 귀농 선배의 이야기 속에 ‘지금 우리만 힘든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도 농촌이 살만하다는 선배들의 이야기가 공감이 되어갔다.

한편 이 프로젝트는 농산물의 생산부터 가공, 판매 등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하면서, 소득 창출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이런 시도를 모여서 상의하고 직접 선택해서 해보았다는 것이 중요했다. 아직 청년의 농사 경험은 전공부에서의 2년, 혹은 농사가 처음이라 완속하지 않다. 이 부분은 농촌에 더 살면

서 지식과 경험이 축적되면 자연스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결과

1. 생산, 가공, 유통

재배 작물은 비교적 재배기간이 짧고, 기르기가 비교적 쉬운 작물을 선택하였다. 또한 대형 냉장시설이 없기 때문에 가공할 수 있는 작물은 바로바로 직접 가공해서 팔기도 하고, 각자가 반찬으로 먹었다. 지난 1년간의 생산과 가공, 유통 비율을 상반기(2017년 4~9월)와 하반기(2017년 10월~2018년 3월)로 나누어서 보면 [그림 19]와 같다.

상반기에는 밭을 만들고 파종하는 등 작물 생산 노동량이 많았지만, 하반기에는 가공을 위한 전체 학습과 실습으로 가공 쪽에 노동비중이 늘어났다.

(단위: %)



[그림 19] 분기별 노동 비중

2. 판매 소득

가. 수확량

상반기, 하반기 모두 재배기간이 비교적 짧은 채소가 기본이 되었지만, 하반기에는 고추, 노각, 가지 등 작물이 추가되었다. 전체 강수량이 예년보다는 적었지만, 7월에 적절히 비가 왔기 때문에 작물을 키우는 데는 무리가 없었다. 그러나 작물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해 필수 조건인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대책은 필요하다. 빗물 저장소를 설치한 것이 주요 대책 중의 하나였지만, 용량이 작은 아쉬움이 있었다.

<표 1> 분기별 수확량

(단위: kg)

상반기		하반기	
작물	수확량	작물	수확량
근대	5.0	가지	29.6
머위	2.0	근대	17.5
무	46.0	노각	23.0
배추	13.5	대파	7.0
상추	24.0	부추	5.9
시금치	9.0	아욱	14.5
아욱	4.8	양상추/상추	13.5
열무	27.0	풋고추	10.0
오가피	13.0		
청경채	16.8		

나. 소득

판매처별 판매액은 <표 2>와 같다. 지난 1년 동안 일주일에 1회 평균 2~3명이 참여하여 하루 6~9시간 정도 일하였고 총합산 금액은 4,405,110원이다. 이는 1년(52주)간 2.5명이 7시간 30분간 노동한 것으로 시간당 약 4,500원 정도의 수입이다. 일 년 동안 인당 백만 원 정도가 배분되었고, 나머지는 2018년도 자본으로 남겼다. 농장에서의 수입은 각자의 생활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는 못했지만,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경험을 쌓았다는 점에서는 중요하다고 본다.

<표 2> 판매처별 판매액

(단위: 원)

판매처	상반기	하반기	합계
갯골생협 판매	358,000	1,085,200	1,443,200
학교 판매	629,860	407,250	1,037,110
기타(반찬가게, 모종판매, 꾸러미)	1,157,200	767,600	1,924,800
합계	2,145,060	2,260,050	4,405,110

3. 수입과 지출

가. 개인별 특징

처음 프로젝트에 참여한 청년은 총 6명이었으나 중반에 2명이 도시로 돌아갔고, 후반에 1명이 해외취업으로 프로젝트를 나가 끝까지 진행한 인원은 총 3명이다.

나. 개별 수입과 지출

<표 3> 개인별 특징

참여한 청년	개인별 특징	프로젝트 이전의 생활	재무 현황
A	직장생활 후, 전공부 입학	전공부	전무 ¹
B	귀농 관심	직장생활	
C	대학 중퇴 후, 전공부 입학	전공부	
D	대학 휴학 후, 전공부 입학	전공부	
E	대안학교 졸업 후, 전공부 입학	전공부	
F	직장생활 후, 전공부 입학	전공부	

주: 참여한 청년의 재무 현황이 전무인 것은 부모님과 함께 생활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돈을 모으지 않았거나, 소득 활동이 없었기 때문임

마을 간사로 일한 A의 수입과 지출은 다음과 같다. 수입은 마을 간사가 주이며, 기본소득, 아르바이트,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다. 지출은 생활비, 집세, 저축에 사용했다.

<표 4> A의 수입과 지출

(단위: 만 원)

수입		지출+저축	
마을 간사	600	생활비	410
기본소득 ¹	180	집세	120
기타 ²	70	지출계	530
프로젝트	100	저축	420
총 수입	950		

주1: 기본소득은 매달 15만 원임

주2: 마을 단체 아르바이트(갯골생협, 만화방, 마을 꽃길 사업)와 농가 아르바이트(토마토 모종심기, 모내기, 김매기)에 대한 수입임

마을 활력소 청년 인턴사업을 받은 B의 수입과 지출은 다음과 같다. 수입은 인턴활동과 기타, 프로젝트로 이뤄지며, 지출은 생활비, 집세, 저축으로 구성된다.

<표 5> B의 수입과 지출

(단위: 만 원)

수입		지출+저축	
마을 활력소 인턴	250	생활비	350
기타 ¹	200	집세	120
프로젝트	100	지출계	470
총 수입	550	저축	80

주: 마을 단체 아르바이트(갯골생협, 만화방, 마을 꽃길 사업)와 농가 아르바이트(김매기)에 대한 수입임

청년 지원 사업을 받은 C의 수입과 지출은 다음과 같다. 수입은 청년 지원 사업과 기타, 프로젝트로 이뤄지며, 지출은 생활비와 저축이다. C의 주거는 일하는 농가에서 받아 별도의 지출이 없다.

<표 6> C의 수입과 지출

(단위: 만 원)

수입		지출+저축	
청년 지원사업	400	생활비	600
기타 ¹⁾	400	집세	0
프로젝트	100	지출계	600
총 수입	900	저축	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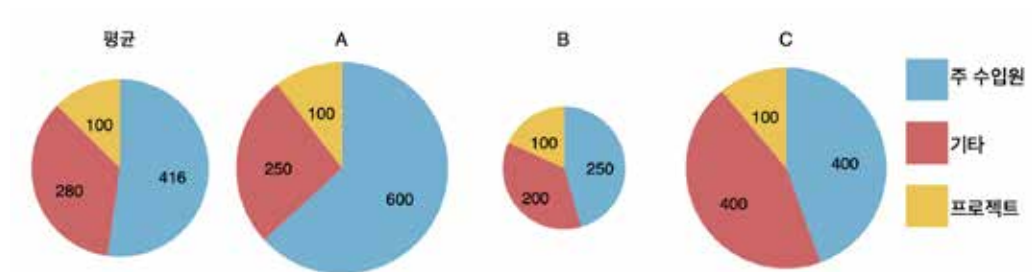
주 1: 농가 아르바이트(축사 관리, 예초 작업, 모내기/추수 작업)에 대한 수입임

다. 평가

1) 소득 평가

1년간 프로젝트에 참여한 A, B, C의 연 평균 수입은 800만 원 정도로 월로 환산하면 평균 67만 원 정도이지만, 이마저도 개인차가 크다. 주 소득원인 마을 간사와 인턴사업, 지원사업으로 얻은 소득은 평균 416만 원, 농가 혹은 마을 단체에서 아르바이트로 발생한 기타 소득의 평균은 280만 원, 이와 별도로 프로젝트를 통해서 각자 100만 원씩 소득이 있었다.

(단위: 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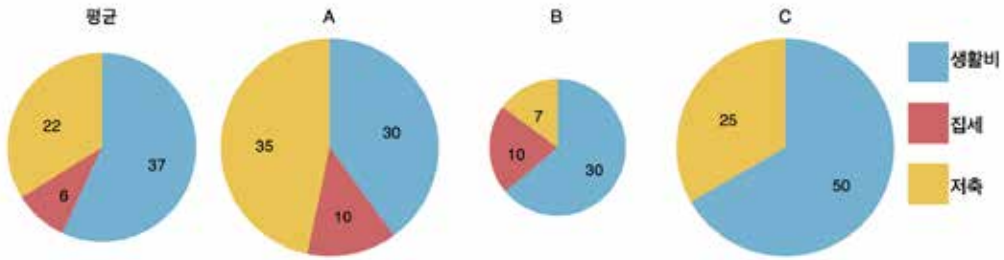
[그림 20] 참가자별 1년 소득 분석

2) 지출 평가

1년간 기본 생활비는 평균 453만 원, 월로 환산하면 평균 37만 원 정도이다. C의 경우 집

세가 지출되지 않아 다른 두 참가자보다 지출이 120만 원이 낮다. 저축은 평균 22만 원 정도로 개인의 생활 습관과 수입의 정도가 다르기에 저축의 편차가 크다.

(단위: 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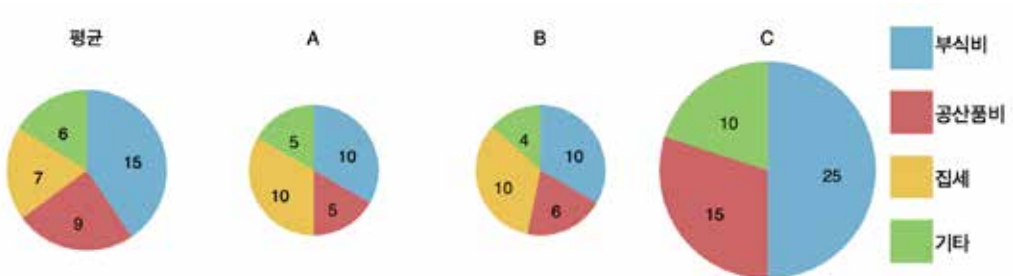


[그림 21] 참가자별 월평균 지출 분석

3) 생활비 세부내역

부식비는 필요한 음식재료 구입비와 외식비가 포함된다. C의 경우 외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비교적 많이 들었다. 기타는 영화관람 등의 취미생활 비용과 핸드폰 비용, 세금이 포함된다.

(단위: 만 원)



[그림 22] 참가자별 생활비 세부 내역

결론

1. 농촌에서의 자립: 정부와 마을의 역할이 중요

마을 청년 지원 사업과 마을 활력소 청년 인턴 사업은 청년이 일정기간 경제적 도움을 받으며 실제 농촌에서 살아봄으로써 삶을 선택할 기회를 가진다는 데 큰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각 사업이 진행되는 짧은 기간 동안 농촌에서 안정적인 삶의 방법을 찾기 쉽지 않았다. 대부분 사업이 농업이기 때문에 그 외의 다른 일(목공, 디자인 등)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다양한 지원 사업이 개발되고 진행돼 농업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한다.

나아가 <1단계-진로 탐색>, <2단계-진로 심화>, <3단계-정착> 등 단계별 과정이 필요하다. 농촌 정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간과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런 제도 마련은 정부의 역할이지만,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지역사회는 지역에 필요한 직업군 개발과 청년의 관심 직업군이 맞물릴 수 있도록 중간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

2. 농촌에서의 비전 찾기: ‘성장’과 ‘어우러짐’

프로젝트 참여는 그동안의 삶에서 온 고단함 혹은 새로운 것을 찾고 싶은 마음 등 다양한 사연이 계기가 되었다. 지난 1년은 농촌 현실을 직면하면서 삶의 방향을 잡아가는 과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스스로가 자기 삶에 중심이 되는 가치를 찾고, 그에 따른 성장통을 지혜롭게 견어낼 수 있는 생각과 마음의 힘이 바탕이 되어야 함을 깨달았다. 왜 농촌에 살기를 선택했고, 어떻게 살기를 바라는지에 대한 각자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큰 성과라고 본다.

프로젝트를 하며 삶이 보람되고 만족스러웠던 친구는 계속 농촌에서 살아보려 하고, 기대와 다른 농촌의 현실이 버거웠던 친구는 도시로 돌아갔다. 프로젝트를 끝까지 마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전공부에서 경험하거나 각자가 생각한 것보다 농사일이 힘들고, 노동에 따른 보상이 적다는 생각과 도시와는 또 다른 불편함을 감내하며 살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어디서 자립을 하던 자신이 행복할 방법을 알아내는 것이 청년이 풀어야 할 숙제이다.

한편 프로젝트 진행에는 주변 사람들(마을 주민, 선생님, 선배, 친구)의 관심과 도움이 매

우 컸다. 만약 이런 관심과 도움 없이 혼자였다면, 농촌이 도시와 다를 바 없다고 여겼을 것이다. 사람 냄새 맡으면서 서로 어우러지는 곳, 서로의 관심과 도움이 생활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곳이 우리가 살고자 하는 농촌이다.

3. 향후 계획

프로젝트 참여자들은 1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흥동에서 지금과 비슷하거나 조금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다. 자연재배, 생명역동농법, 자연순환 유기농재배 등의 농사법을 배워 직접 적용해 보려고 한다. 또한 양봉과 논농사도 함께 해볼 예정이다.

개별로는 밭농사 규모를 늘리거나, 하우스 농사를 준비하는 친구도 있다. 그리고 씨앗과 관련된 일을 하게 된 친구도 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을 했다고 할 수 없지만 자신만의 방식을 찾아 살아보려 하고 있다.

청년 자립 프로젝트팀이 설계하고 만든 이 농장은 앞으로 전공부를 졸업해서 마을에 남거나 흥동을 찾아 들어오는 청년이 농촌 마을을 알아가고 자립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해 본다. 지금처럼 함께 모여 일하고,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배우고, 농촌에 관심 있는 친구에게 경험을 이야기하고, 사랑하며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곳이 되기를 희망해 본다.



[그림 23] 양봉 실습

[참고문헌]

1. 갯골생태농업연구소. 2010. 『우리마을입니다』. 그물코. 대덕문화사
2. 사회복지법인삼선복지재단·재단법인삼선배움과나눔재단. 2015. 『농촌으로 이주하는 청년층의 현실과 과제』